

[종합]

국회의원 1인 평균 재산 17억 2,500만원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살펴보니

부동산 값 급등·'평가 변동액' 공개로 늘어 靑 고위직은 급증... 중부세 대상 의원은 94명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결과, 지난해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토지, 건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경우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액 변동이 생기면 공개 대상이 된 게 주된 이유다. 우선 행정부의 경우 청와대 비서진과 행정부 1급 상당 고위 공무원 등 참여정부 실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돈방석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등 소위 버블 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다. 청와대 비서실 소속 1급 이상 고위공무원 40명 등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해철 민정수석은 지난해 재산이 전년 신고 때 보다 8억7700만원 이상 늘었다. 전 수석 외에도 서울 강남과 경기 용인·과

천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진은 모두 14명으로 이들의 재산은 평균 1억4000만원씩 불었다. 전체 행정부 고위관료 625명 중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분만 따졌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모두 280명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대검찰청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가 25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294명(현직 기준)의 재산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정몽준 의원의 재산 변동액을 제외할 경우, 평균 재산은 2억5천만원 가량 늘어났으며 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17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정몽준 의원으로 재산 총액은 9.974억원으로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세 신설을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민생정치모임이 각각 24명, 5명, 3명씩 포함됐다. 민주당 6명, 국민중심당 3명, 무소속 2명도 중부세 과세 대상이었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단 1명도 중부세 과세 대상에 들지 못했다. 고위 법관들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역시 '강남·부동산 불패'현상이 두드러졌다. 재산총액 60억1천747만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한 김중백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가액 11억원인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비롯, 부동산 자산만 41억원에 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 설

서남권특별법 4월 국회서 꼭 처리돼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남·동해안 연안발전 특별법'과 함께 정부 입법으로 병합 심의될 예정이었던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분리 심의된다고 한다. 서남권특별법의 분리 심의는 낙후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남권 특별법은 정부 입법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남·동해안 특별법과 분리 심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남권 특별법의 정부 입법과 국회 병합 심의는 애초부터 현실적으로나 법리상으로 무리한 조치였다. 정부 입법을 위해서는 5~6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병합심리는 정부 예산 투입

과 투자촉진이 핵심인 서남권 특별법과 규제완화가 주요 내용인 남·동해안 특별법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절했다. 문제는 서남권 특별법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4월 임시국회에서 타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로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추진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특정지역에 대한 밀어주기나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4월 국회에서 서남권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야 공동 발의를 통해 서남권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김효석 의원 9억5,000만원 증가 최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산 현황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국회의원 293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9명(무안·신안 공석) 가운데 18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평균 2억 8천만원의 재산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김효석 의원(담양·장성·곡성)으로 지난해에 비해 9억5천100만원이 증가했다. 정동채 의원(광주 서울)은 9억4천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해 2위를 차지했으며 주승용 의원(여수 울)과 이낙연 의원(영광·함

평)이 각각 7억2천만원, 4억4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지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1억1천700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가운데 최고의 재력가는 김효석 의원으로 70억5천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주승용 의원이 39억9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인기, 정동채 의원은 각각 29억4천800만원과 20억3000만원을 신고, 3·4위에 올랐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6억원 이상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김효석, 최인기, 정동채, 이상열, 염동연, 우윤근, 신중식 의원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산 증감 및 총액 (단위:천원)

순위	이름	정당	재산총액	증감액
1	김효석 (담양·장성·곡성)	민주당	7,053,878	951,583
2	주승용 (여수울)	신당모임	3,991,685	727,133
3	최인기 (나주·회산)	민주당	2,948,246	336,394
4	정동채 (광주서울)	우리당	2,003,653	940,380
5	이상열 (목포)	한나라	1,975,335	385,866
6	염동연 (광주서갑)	신당모임	1,920,055	211,174
7	우윤근 (광양·구례)	민생모임	1,807,595	56,032
8	서갑일 (순천)	우리당	1,530,973	46,738
9	김동철 (광주광산)	우리당	1,295,448	227,718
10	유선호 (영암·장흥)	민생모임	1,295,292	57,793
11	이낙연 (함평·영광)	민주당	1,039,536	441,982
12	지병문 (광주남)	우리당	742,673	242,729
13	신중식 (보성·고흥)	민주당	590,929	297,760
14	김기정 (광주북갑)	우리당	492,131	186,485
15	채일병 (해남·진도)	민주당	472,253	24,860
16	안형일 (광주동)	신당모임	393,618	185,473
17	이영호 (원도·강진)	우리당	316,364	61,621
18	김성곤 (여수갑)	우리당	314,494	-117,559
19	김태홍 (광주북울)	민생모임	273,862	64,972

박광태 광주시장 6억 증가

박광태 광주시장의 지난해 말 현재 재산은 1년 전보다 6억원이 증가한 19억3천만원으로 신고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박 시장을 비롯, 고위공무원과 시의원 등 공직자 대상등록 공개 대상자 25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올해부터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액 변동만 있으면 공개하도록 바뀐 재산변동 신고기준에 따라 지난 2002년 최초 신고된 부동산의 4년간 가액증가분 5억4천만원을 포함해 19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 신고자는 사인봉 의원으로 부동산 가액증가분 7억원을 포함해 62억원을 신고했고, 가장 적은 재산은 김월출 의원으로 마이너스 5천만원이었다. 강박원 시의회 의장은 7억7천만원을 등록했으며, 임우진 행정부시장은 11억7천만원, 이병화 전 정무부시장은 6억1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와 함께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상동 의원(17억8천만원), 나중현 의원(12억8천만원), 김남일 의원(10억8천만원), 이희욱 도시공사사장(11억7천만원) 등이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아버지 무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지난달 폭탄테러로 고 윤장호 하사가 희생된 뒤 처음으로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는 다산·동의부대 환승식이 열려 한 어린이가 파병되는

재산 불성실 신고 공직자 4,367명 적발

정무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공개된 2006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8만9천462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불성실신고자 4천36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5명 ▲과태료 1명 ▲경고 90명 ▲보안명령 1천250명 ▲정정조치 3천2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된 2007년 공직자 재

산변동 신고내역을 6월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사실이 확인되면 정정에서부터 징계의결까지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필요하면 3개월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의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남북 접촉 국정조사 추진”

한나라당은 3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와 비밀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비선을 동원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대선용 또는 정치 관세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국민적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내 주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3당 교섭단체를 비롯한 6차 원내대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는 “어떻게 남북정상회담을 사실 라인 이 장막 뒤에서 비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배후 인물들은 한미디로 선거기회 전문가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공식라인이 투명하게 전개해야 하며 북핵폐기 및 북핵불능화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못됐을 뿐 아니라 남북이 안보는 물론 남북 평화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재원 광주시의원·나정숙 서구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서재원(45·남구 1선거구) 광주시의원과 나정숙(여·50·서구 다선거구)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식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이 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해당 선거구들은 다음달 25일 재선거를 치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80년대 대학풍경도 아니고... 참~

‘천년비색의 신비’ 세계가 감탄

강진 청자문화제 제주도 ASTA총회 선포

천년비색의 신비, 강진 청자문화제가 세계 관광시장에 첫 선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30일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미주여행업협회(ASTA)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강진청자문화제를 선보였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과 아시아권 국가 등 41개국 여행업자와 언론인 1천200여 명이 참가했다. 강진군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ASTA총회 관광교역전에 참가해 세계여행업자들을 상대로 청자골의 주요 관광지와 6년 연속 국가 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청자문화제를 집중 홍보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청자문화제 홍보관에는 김중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세키 후다(Cheryl Hudak) ASTA 회장을 비롯한 참가국 VIP와 함께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홍보관에 전시된 강진 청자의 빛깔과 곡선미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으며, 청자 제작과정과 구입방법을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준형 강진군 관광산업담당은 “이번 ASTA총회는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속의 강진청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여행업협회(ASTA)는 전세계 140여 개국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 관광기구로, 새로운 관광지 소개와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과 해외에서 매년 두 차례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경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독서실·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인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